

5.18정신을 되새기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과 살상을 즉각 중단하라



김현성 변호사
대표회장(직무대행)

1980년 5월은 신군부의 권력 야욕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로써 항쟁하던 시기였다. 5.18민주화운동 제4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그 정신을 되새긴다. 총칼을 앞세운 신군부의 권력 야욕에 굴하지 않았던 자들의 삶과 희생들이 있었기에 남은 자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새삼 고개를 숙인다. 현재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찬탈하자 이에 대항하여

국민들은 4개월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군인과 경찰들은 무력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무력진압과 무고한 국민들에 대한 살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힘으로 꺾

을 수 없다. 모든 권력은 총과 칼에서 나오지 않으며, 국민들의 마음의 땅을 얻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국민들의 뜨거운 열원과 희생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듯이, 당장은 군부의 총칼이 제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얀마에서도 결국 민주주의가 꽃피게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독재와 폭력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미

얀마의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기를 염원한다. 한국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힘써 도울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미얀마의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5월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직무대행) 변호사 김현성

한교연,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에 정착지원금과 아기용품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지난 12일(수) 오전 11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아기를 양육하는 미혼모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행사를 마련했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매년 5월에 개최해 온 미혼모 돌봄 나눔 사업은 올해로 일곱 번째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가 최근에 동작구 상도동에서 구로구 오류동으로 이전한 후 가진 첫 번째 행사였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효중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가 "위기 속에 기적"(출 2:1~1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송태섭 목사는 설교에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서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에서 살려 내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원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나 또한 그 어머니가 자식을 반드시 살리고 말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꿈나무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자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식을 잘 양육해서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인물이 되도록 한국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격려사에서 "5월 10일이 국가가 정한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는데, 그런 날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부모 가족이란 어린 나이에 부득이하게 부모가 된 미혼모, 미혼부를 말하는 데, 이런 미혼모, 미혼부가 한 해

평균 1만 4천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교연이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벌써 7번째 미혼모를 지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뭉툰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멀어져서 걱정이다. 그럴수록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속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돌보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꿈나무' 미혼모 지원 행사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식에서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기저귀 등 아기용품을 전달했으며,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미혼모자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는 "매년 한교연이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사랑의 실천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꿈나무는 미혼모자가 2년동안 거쳐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취업 상담과 교육 등을 지원하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지금은 6가정에 각기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해 주어서 아기 양육과 스스로 자립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소외시설을 지원하는 일에 몸도 마음도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한교연의 지원과 관심이 너무나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가 광고한 후 서기 김병근 목사가 축도로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미혼모자 생활가정 '꿈나무'에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상임회장 김학필 목사,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 부성행외과 최순우 원장 등이 후원했다. 특히 김옥자 목사가 시무하는 임마누엘교회 여전도회(회장 이순영 권사)는 매달 '꿈나무'를 방문해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세기총, 쪽방 기거 어르신 섬김으로 9회기 시작, 지회장 간담회 영상



심평종 목사
세기총 대표회장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9회기 첫 사업으로 쪽방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다.

4일(화) 오전 10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해돋는마를 노인대학, 신생명나무교회(담임 장현일 목사)에서 쪽방에 기거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대체식과 함께, 지팡이와 손전등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시간 간격을 두고 어르신들이 교회

를 방문해 대체식(식사꾸러미)과 선물을 받았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직접 봉사자들이 방문해 전달했다. 세기총은 매년 회기가 시작할 때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이날 섬김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어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달한 대체식과 지팡이와 손전등 등 선물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와 세기총 임원 및 후원이사들의 협력으로 준비됐다.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거동이 불편해 교회로 찾아오지 못한 어르신(92세)을 직접 방문해 대체식과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기도 했다. 인사에 나선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세기

총이 회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표회장으로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또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신 장현일 목사님의 헌신에도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장현일 목사는 "세기총은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을 단순히 행사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랜 기간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면서 "사랑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새롭게 회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쪽방 어르신들을 섬겨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때이 북



음이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취지설명을 한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는 "세기총은 정기총회 후 신임 대표회장의 첫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로 시작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세기총은 앞으로도 소외받고 고난에 처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세기총 미얀마 지회장 김균배 선교사의 기도로 마무리됐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화요 찬양

미서부 남가주 지역에 찬양을 통한 문화사역을 왕성하게 펼쳐 왔던 원하트미니스트리(One Heart Ministry 대표 피터 박 목사)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예배를 지난 1일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시작으로 오렌지카운티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했다.

팬데믹 시대에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간편하게 드려진 예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원하트가 Simple Worship으로 새롭게 다가간다.

피터 박 목사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이 시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깨닫게 됐다. 코로나로 막혀있던 예배의 감동을 채워줄 'Simple Worship'이 여러분 곁으로 다가가고자 한다. 불필요한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예배만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원하트미니스트리 화요 찬양 모임은 오는 18일 오

후 7시 30분 오버플로잉교회(담임 김충만 목사)에서 시작된다.

2014년부터 시작된 원하트 미니스트리 사역은 크리스천 음악인들의 공연이며, 찬양사역자 강찬 목사를 비롯한 동방현주, 김브라이언, 인디밴드 블루앤블루 등이 공연을 기획했으며, CCM 가수 양성을 위해 CCM루키라는 이름으로 복음가가 대회로 개최한 바 있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심의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목사 이사장: 오종철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정기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jipress@hanmail.net / jtntvcj@naver.com

▶팩스: (032)672-3031

▶HP: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 부터~

▶1년 구독료: 5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일기도	오후 8시
새벽기도	오전 6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WRTS 세계로신학술원·신학원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의 졸업장 수여 함.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2021 풍요
전도와 선교하는 한해



당회장 정대성 목사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일아침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룡



상담목사 박영미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순회기도회 열어



이천은광교회를 방문한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임원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오범열 목사) 임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 이천순복음교회(담임목사 김명현)에서 기도회를 갖고 경기도 발전과 도내 31개 시군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했다.

사무총장 박창운 목사의 인도로 대외사무총장 정찬수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재무국장 정복균 목사의 성경봉독과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가 사도행전 11장 25-26절을 본문으로 “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산은 나무와 흙과 돌을 다 수용할 때 큰 산이 된다. 바다도 흙탕물 등 모든 물을 수용할 때 큰 바다가 된다.”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한 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를 멀리 했으나,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안디옥교회의 지도자로 함께 사역을 한 후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을 받았다.”며 바나바의 넓은 포용성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고 사울 같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교회들이 힘을 모아 성시화운동 활발하게 일어나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서자.”고 강조했다.

대표본부장 김명현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국장 최선 목사의 기도로 31개 시군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했다.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앞으로 매월 지역을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파주시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양상규 목사), 평택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배창돈 목사), 안산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영길 목사) 등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지역부터 순회기도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으로 내정된 김상기 목사가 시무하는

이천은광교회를 방문해 교회 사역을 소개받고 기도했다. 또한 7월 중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은광교회는 1959년에 설립된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소속 교회로 되어 1500여 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현재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범열 목사와 김철영 목사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장로)와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추진하고 있는 교회 대안학교(VIS스쿨)를 소개했

다.

김상기 목사는 “이천은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려는 예배공동체로 바른 복음 선포를 통해 제자화, 양육, 교제를 이루고 각자 파송 받은 삶의 자리에서 구원, 위로, 소망을 이웃에 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배의 감격을 통해 교회생활의 행복과 목장에서의 진교 및 가정사역이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며 가정을 교회처럼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세워간 것처럼 사도행전의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교육에 비전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섬김과 봉사를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설 은광유치원과 복지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필요에 헌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웨스트민스터 바울신학교 학술원 C·U학위 수여식



허창범 목사
C.U국제총장

위수여식을 갖는다. C·U학위수여식은 1부 경건예배, 2부 학위수여식, 3부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박정균 박사(웨신총회 총회장, WPTS 이사장)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다. 2부에서 C·U 국제총장 허창범 박사는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 박사학위, 축하패 수여, 논문 우수패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3부는 격려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Martin 박사(C·U총장) Johnson박사(C·U대학원장)는 학위수여영상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이 외 격려사, 축사, 특송,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웨스트민스터 바울신학교 학술원 C·U학위수여자는 명예박사학위수여자는 명예경영학박사에 최인선 박사, 명예신학박사에 김명길 박사, 명예교육학박사에 임예성 박사, 명예음악박사에 김수배 박사 등이며, 박사학위수여자는 신학박사에 이준영 박사, 신학박사에 김태욱 박사, 선교학박사에 양은실 박사, 기독교교육학박사에 정순옥(정제윤)박사, 기독교상담학박사에 김재권 박사, 목회학박사에 이스라엘 박사 등이다.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 성결교가 선봉에 선다



▲성결교단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고 하나님과 성도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목회자 윤리강령을 제정 발표했다.

우리나라 3개 성결교단의 연합체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한기재, 목사)는 지난 14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목회자 윤리강령’을 발표했다.

윤리강령은 개인윤리에 관한 영역, 교회윤리에 관한 영역, 사회윤리에 관한 영역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돼 각 12조항씩 총 36개항이 수록됐다.

개인윤리 부문에는 △개인의 이익, 권력,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청렴하며 정직할 것 △유실이나 천박하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절 하지 않을 것 △다른 이

의 설교나 글을 표절하지 않을 것 △가족에게 언행으로 폭력을 행하지 않으며, 목회사역을 위해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와 만남을 일절 갖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교회윤리 부문에는 △목회자라는 특권 의식을 지양하고 성도들을 목회의 중요한 동역자로 존중할 것 △교회 안에서 지역, 학벌, 성, 빈부, 사회적 신분 등에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을 것 △전임자와 후임자, 다른 사역자들의 업무에 허락 없이 관여하지 않을 것 △불의한 교회 매매와 성직 매매를 하지 않으며 직·간접적 교회 세습을 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됐다.

사회윤리에서는 △사회의 한 시민으로 법과 사회질서를 존중하게 성실하게 준수

할 것 △정교분리의 원칙에 서서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되 공권력이 정당하게 행해지도록 감시하며 협력할 것 △양극화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정책을 비판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녹색 생활양식을 실천할 것 등을 다짐했다.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성연 사회윤리위원장 임태영 목사는 “우리 사회가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파급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지 오래”라면서 “윤리 이전에 물론 신앙이 있다. 하지만 신앙이 윤리적이 되지 않을 때 오는 위험이 대단히 크다. 목회자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윤리강령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한성연 대표회장 한기재 목사는 “교단마다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물론 윤리에 저촉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 윤리강령은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윤광식 기자(kidokilbo@daum.net)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주님의 영광교회 박순애 전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지난달 22일(목)부터 25일(주일)까지 4일 동안 박순애 전도사를 초청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시편 40편 17절)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성전 비전센터에서 특별 부흥성회를 가졌다.

셋째 날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집회에서 박순애 전도사(새아덴교회)는 ‘반

드시 복 주고 복 주며’(히 6: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전도사는 “골방의 기도는 내 생명줄이다. 골방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생각이 앞서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서서 자가 되자. 광야를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

계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넉넉함, 이런 가슴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 기도의 자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될 수 있다. 변절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다. 나를 잃어버리면 변절로 가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변화, 이성적 사람은 변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박 전도사는 또 “기도의 골방은 내 영혼의 광야이자 생명의 젖줄이다. 믿음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과 역경이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적 세계를 이뤄가고 있다. 광야에 앞둔 자는 나

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앞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라”고 강조했다.

박 전도사는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시 40:17)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고전 1:18) △환난의 강을 건너라(시 50:15)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순애 전도사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창립 38주년

예배의 시간을 문의 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에 전화를 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상련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성기는 분들

부목사: 모정선 박민수 모항신 모성운 / 전도사: 추정희

시무장로(13인) 협동장로(2인) 은퇴장로(3인) 무임장로(1인)

파송선교사: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송영관(태국)

최문정(태국) 김미경(아프리카(00국)) 김경환(남아공)

송선아(남아공) 썬공소아이(베트남) 강새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약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약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백석대신 서울노회와 대신노회 통합 합의



유충국 목사 “조건 없이 통합 추진해 좋은 결실” 김동우 목사 “함께 비전 있는 노회로 나아갈 것”

예장백석대신 교단의 서울노회와 대신노회가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통합추진위원들과 노회장들은 지난 20일 경기도 구리시 제자교회(담임목사 유충국)에서 모임을 갖고 통합 합의서를 작성했다.

통합된 노회명은 서울노회로 하기로 했고 통합 노회장도 서울노회에서 맡기

로 했으며 신입원진 역시 서울노회에서 조직하기로 했다. 대신노회가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결단한 결과 통합이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에 서울노회 측도 신입원진 구성에 대신노회 측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은 조만간 통합을 위한 절차를 각각 거칠 예정이다. 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임시노회를 열고 통합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대신노회는 5월 4일 정기노회 때 통합안을 승인할 계획이다. 노회 통합 감사예배는 5월 4일 오후 2시 제자교회에서 드린다.

한편 서울노회는 구 대신교단의 모체 노회에 해당하는 역사성을 갖고 있고 백석 측과 교단 통합 때 중심 역할을 감당할 바 있다. 현재 백석대신 총회를 구성할 때도 서울노회가 핵심 역할을 했다. 대신노회는 구 대신교단의 남서울노회에서 활동한 인사들로 구성된 곳이다. 구 대신교단이 백석 측과 통합할 때 핵심 역할을 한 유충국 증경총회장을 중심으로 노회원들이 결집해 있다.

서울노회와 대신노회가 통합을 완료할 경우 역사성과 규모를 모두 갖춘 노회가 돼 교단 내에서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합과 관련해 대신노회 통합추진위원장 유충국 목사는 “처음부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을 하려 하면 서로 상처 입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노회 이름과 임원진 선임 권한도 욕심내지 않았다. 우리는 형제와 연합하는 것 자체가 기쁨기에 이번 결과에 감사하고 있다. 우리의 통합이 다른 노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노회 통합추진위원장 김동우 목사는 “서울노회는 대신의 뿌리인 노회인데 교단이 나뉘며 인원이 줄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에 대신노회와의 통합으로 힘을 얻을 것으로 본다. 통합을 하며 젊은 목회자들이 늘어난 것도 감사하다. 이들과 함께 비전 있는 노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신노회가 모든 걸 위임해 주셨기에 우리가 배려하며 상식선에서 임원 조직을 했다. 두 노회가 하나 됨으로 인해 모범이 되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회자 가정에 대한 사모의 임무와 역할

사모의 영광은 고난 통해 성숙해지고 거룩해진다



이희숙 목사

가까워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은 “사모들은 남편 목사에게 사랑과 인정받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력히 권면하셨다. 이 세상에 사모들처럼 어려운 위치에 세움을 받은 특별한 일꾼들은 없다.

사모는 일생을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하여 일생을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다.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그래서 사모는 확실한 소명감이 없이는 승리하며 이 길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불타는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성품과 신앙 인격이 중요하다.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지 않으며 오랜 경건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사모에게 있어서 사역의 현장은 모난 인격과 부족한 성품이 다듬어지는 훈련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아내들은 수많은 인간 관계를 통하여 자기를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빨리 인식하고 순응하여야 한다.

필자가 목회 초년에 몇몇 성도들에게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받았는지 신경성 위궤양까지 걸려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들 때문에 필자의 모난 신앙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필자의 강한 훈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들이 너무나 고맙았다. 그리고 심히 부족한 사모를 항상 격려해준 남편과 필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 뿐이다.

피종진 목사 초청 5월 부흥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T: 02)3411-9191 F: 02)401-7770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6(목) 오후	기독교회관 대강당 총회장 김남익 목사 ☎ 010-4536-5747
7(금) 오전	평택 주한 미군사령부 Opening Worship of ROK-US
9(주) 오후	의정부 주사랑교회 (김은희 목사) 010-7109-9177
10(월)~12(수)	아산 은혜교회(이은혜 목사) ☎ 010-8365-2456
11(화) 오전	인천 만수 감리교회(성요한목사) 주최 : 한국 기독교 영풍회 ☎ 032-464-2144
13(목)~14(금)	양주은혜교회 (허용환 목사) 010-2971-0191
15(토) 오후	서울 주소망교회 (이주은 목사)
16(주) 저녁	서산 OBY 기도센터 (원장 김수봉 목사) 010-3858-9030
20(목) 저녁	인천 비전교회 (성두현 목사) 010-3792-8291
23(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 (김희준 목사) 010-8633-0190
24(월)~25(화)	포항 예수심터기도원 (원장 이인철 목사) 010-4717-0041
27(목)~29(토)	천안 임마누엘교회 (강예복 목사) 010-2433-9747
28(금) 오전	국민일보 국민비전 부흥사회 (총재 고충진 목사) 010-3899-0691
	국민비전 부흥사 120명 선정식
31(월) 오후	서울대학교 (ABKI) 최종합격자 입학식 (Entrance Ceremony Orientation)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금병달 박사 선교사를 위한 한방 건강코칭 세미나



코로나 VIRUS 의 모양

금병달 박사(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대표)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평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각종 난치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GMAN 대학에서 한방 건강코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병달 박사는 “코로나 확진 시 처방법으로 첫째, 휴식과 안정, 충분한 수분 섭취, 고함량 비타민 C, D3 아연(ZINC) 섭취가 중요하다. 이때 자신의 면역 체계가 강하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둘째, 코로나 증상 후 5일

이내의 경우,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말라리아 약), 아연, 아세트프로미딘(항생제) 등을 복용하면 바이러스 세력이 약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셋째, 증상 후 5일이 지난 경우, 대중 요법으로 해열제, 진통제로 타이레놀 등 처방 및 항 바이러스제 투여(HIV 치료제, 에볼라 VIRUS 치료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 박사는 “중국 진료지침에 따르면 코로나의 경증부터 아주 위중한 시점 직전까지 청폐배독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성에서 1,260 여 명에게 약을 처방한 결과 97.8% 환자들에게

서 유효한 증상 개선(1102명+29명 완치 71명 증상 개선)-중국 국가 중의약 관리국에서 발표(2020.2.6). 청폐배독탕은 코로나 19 중국 진료지침 6판에 따른 것으로 한국 한의사 협의회가 자가 격리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을 무료 배포하게 되었는데 7개(한방) 제약사-씨아이, 옴니하브, 새롭제약, 그린명품제약, 함소아, 옥천당, 씨케이 등 7개 한약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청폐배독탕 제조에 참여했다(마행석 감탕+청폐탕+소시호탕+오령산+사간 마황탕의 가감 합방). 청폐배독탕은 이노작용과 소화 촉진작용으로 몸의 습기와 열을 밖으로 배출시켜 몸의 열(발열) 특히 상부의 열을 꺼주면서,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의 인후염과 기를 순화시켜 기침을 멎게 한다. 또한 산약을 다량 넣어 완만하게 기를 보해주어 비, 위장과 폐, 간, 신장의 힘을 길러준다”고 밝혔다.

금 박사는 또 “코로나 예방법은 한마디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면역력이란 우리들의 몸 안 밖에서 침입해 들어와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곰팡이나 세균, 바이러스 같은 병원성 미

생물이나 활성산소로 말미암아 각종 염증이나 암의 형성에 대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병원균, 독소, 유해물질 같은 외부 인자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항원)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세포를 포함한 건강을 해치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해, 인체를 보호하고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몸의 건강, 곧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하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회복력, 복원력이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 체계가 약화되어 세균 인식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건강이 무너지기 쉽다. 면역력 획득 방식에 따른 분류는 첫째, 선천적 면역(The innate immune system-엄마의 초유 통해), 둘째, 후천적 면역(Acquired immune system-먹는 음식물 통해)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면역 대처방식에 따른 분류로는 내적으로 혈액 내 백혈구 및 림프구(특히 체장, B-T-세포), 외적으로 장내 세균(유익균) 80%: 대뇌의 판단 및 처리 20%, 면역력을 낮추는 주범은 스트레스(자율 신경계 및 호르몬 체계의 혼란을 야기시켜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과로, 불면, 과식, 잘못된 식생활(단백질, 아미노산 결핍, 혈액이나 백혈구 부족으로 면역력 저하)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

설립 32주년 기념

꿈 의 교 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맞선목사 이요셉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연산동) TEL (061) 277-0498

www.mokpodream.org

나부터 2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밤 예배 저녁 7시 30분
삼일 밤 예배 저녁 7시 30분
금요일 밤 예배 저녁 9시

교육기관 예배

창년 대학부 (토) 저녁 6시 30분
어린이 주일학교 주일 오전 8시 30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게시특 9장 강해(58)

종말 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인생들의 말로!!

(지난번에 이어서)

게시특 20~21절 “이 재앙들의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견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21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독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본문 20-21절에 회개(μετανοέω) 메타노에오)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인가요? 즉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20절의 그들이 마귀들과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문자적인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에 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살인, 마술, 음행과 도독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는 문자적인 살인, 마술, 음행과 도독질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살인’은 그들이 직접 순교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임을 말씀합니다. 환란 날 순교자들의 유체를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환란 전 은혜 시대 때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인 자들이요, 그들이 가진 비진리로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정죄하여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 깨뜨리지 않으시고 둘째 하인 3차 세계 대전을 경험케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전능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마술’은 교회 안에서의 마술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적을 베풀고 술법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마술은 귀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적입니다. 무당이 작두 위에서 칼날에 베이지 않고 춤을 잘 춥니다. 이는 무당 귀신이 이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술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떠나 부흥회 때 최면술로써 신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이적과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회개시키는 등 열매를 맺게 하는 유익한 역사이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음행’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간음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표적을 좋아하는 것이나 비진리로 인해서 음행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음행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순수한 진리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불순물이 섞인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환란 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도 믿지만 적그리스도가 훌륭한 평화의 사도라고 하여 그를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하숙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되어서 영원토록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핵전쟁의 둘째 화를 경험한 생존자들이므로 자신들의 행실을 되돌아보고 그 음행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독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하늘나라의 영광·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끼리도 도독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재산과도 같은 그 영광을 잘 받아서 행복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소극적 도독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을 몇 년·월·일·시에 발발할 것을 미리 정해놓고 계시다가 터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둘째 화가 9장 21절로 끝났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 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삼분의 일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계 11:13~14)

영역식 표현 방식에서도 앞서 말한 것을 재차 말할 때 가급적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의 본문 계 11:13절 말씀은 계시록 9장의 둘째 화를 말씀한 것인데 둘째 화의 핵전쟁을 똑같은 단어와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삼분의 일이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칠천 명이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 11:13절 후반부에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계 9:20-21절에서는 둘째 화의 재앙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같은 사건의 예언 계시인 계 11:13절에서도 남은 자들이 똑같이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화를 받은 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계 11:13절 큰 지진으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인가요? 둘째 화가 있는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세상인데 그 누가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는 이미 전 삼 년 반에 순교했고 또 신실한 알곡 성도들은 예비처로 인도되어 간 상태

입니다.

둘째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롬 11:25절에 이방인들의 총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고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구원이 남아있어서 지금 이방인들의 은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이제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롬 11:26).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아람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앴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함과 같으니라”(롬 11:26-27), 즉 12:10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찢었던 예수님을 쳐다볼 것이며 그를 위해 애똥하고 유대 민족이 대대적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쳐흐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숙 13:1).

그러므로 후 삼 년 반에 있게 될 둘째 화가 유대인들의 회개를 불러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둘째 하인 3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 민족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후 삼 년 반에 들어간 영적 이스라엘은 그들의 심령이 완악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육적 이스라엘은 그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유대 민족을 구별해 두셨다가 이미 예비처에 간 성도들과 함께 휴거하게 하십니다. 휴거된 유대인들은 재림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소원인 다윗 왕국의 회복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세계 3차 대전을 몇 년·월·일·시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계 1·2차 대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마24:32)로써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유대가 멸망한 이후 이천 년 동안 국호와 국호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비로소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2차 대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을 통하여 시오니즘, 즉 온 세계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영국의 외무장관 발포아가 공식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진 것’을 말씀하고 세계 2차 대전으로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다음 세계 3차 대전을 통해서 그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1·2·3차 대전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먼저 택함 받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와 보증을 하심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의 여섯째 천사의 핵전쟁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쓸데없는 사건이 아니라 유익한 것이며 하나님은 정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시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인류의 큰 역사적인 사건인 세계 3차 대전을 미리 알고 있으므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한 하나님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알려주어야 합니다(행 13:48).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그 날을 피하여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9장 강해를 마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이어집니다.)니다.

다음번에 이어집니다.

목사코너 311

나인성 여인이
죽은자를 부활로 받았다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진리 총회장/CJTN tv 부이사장)

(눅 7:11-16) 주님이 나인 성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릅니다. 이 ‘성읍’은 헬라어 원문 ‘폴리스’로써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나인성읍은 나인교회를 말합니다. 그 나인이란 원문의 뜻도 ‘건전한 심령의’, ‘절제하는’이란 뜻을 가졌으니 이는 주님이 찾아오신 이후의 나인교회는 건강한 심령교회, 절제있는 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임을 계시합니다. 왜 주님이 나인성을 가실까?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 가시는 것이지 우연히 맹목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여전히 자신의 교회들을 찾으시며 돌보십니다. 특히 인자 같은 분으로 금촛대교회에 다니시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더라.’는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은 나인교회의 성도들이 많음을 가리킵니다. 즉 나인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크게 교회가 부흥 성장 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녀, 즉 나인성의 그 어머니는 외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은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인교회 교역자가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 목회자를 배출했음을 계시합니다. 그 여인이 과부라 했으니 세상적으로는 의지할 남편조차 없는 과부이나 영적으로는 ‘말씀의 지혜’ 은사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골앗같은 말씀으로 기쁨으로 살며 주님만 의지하는 여종이니 영으로는 과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외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그 교역자로부터 영생의 말씀을 받고 세워진 이 목회자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 성도들에게 잘 증거 하며 목회를 잘해서 교인 수가 늘고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목회자가 죽었는가? 이는 12절 상반절, ‘사람들이 그 죽은 자를 데고 나옴’을 통해서 그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며 떠받들어 높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칭찬을 받는 자는 화 있다.’ 했지요(눅 6:26). 자신이 칭찬받을 때 이를 좋게 여겨 자기 칭찬받아버리면 실제 교회를 부흥케 하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챈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금을 용광로에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된다 했지요(잠 27:21). 우리가 칭찬받을 때 오직 그리스도에게 즉각 다시 돌리면서 자신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자신 속에 칭찬 듣고자 하는 육적 요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주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죽은 자가 일어나 말을 하더라.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히 11:35). 즉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칭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영생의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몸이 된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임을 믿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담임 이규필 목사
(한신대학 이사장)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호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o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담임 서동국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한동보수 총회장)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 교회



담임 고성규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헌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하는교회



담임 마순덕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장한국 목사
(전주총회장)

주일에 배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로10, 701호(바나나동)
홈페이지 http://jj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담임 이정민 목사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9** |

V. 여름 타작마당의 의미(임무)를 알아보자

영적인 교회로 육적인 교회 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음 시간 이어서)

그래서 야모스 8:2에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이스라엘의 끝을 말한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 끝을 말한다. 종말을 가리킨다. 이제 과일이 등장하고 있다. 과일이 진열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과일을 보시는데, 좋은 것만 보신다. 상하고 터지고, 썩고 낱새나는 과일은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는 오직 좋은 과일만 합격된다. 잘 익은 과일만 합격이다. 흠이 있고 낱새나는 것과 꾀과일은 안된다. 꾀과일은 이미 때가 늦었다. 오직 잘 익은 과일만 합격이다. 불합격품은 절대 안 된다. 여름 타작마당에서 되어질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아내신다.

I. 롯 3:1~5절까지 다같이...

그 후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을 구하지 아니하라? 그것이 네게 좋은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함께하였던 여종들을 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 보라, 그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킬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너도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추고 누우라. 그리하면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그가 네게 말하리라.” 하자, 롯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신부를 만드는 방법 일곱가지가 나온다. 1)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느냐? 신부 준비 단장이다. 3절에서 목욕하라고 했다. 목욕은 회개를 뜻함. 신부의 자격은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

2) 3절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했다. 이는 성령을 말한다. 늦은 비 성령. 마지막까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기름을 발라야 아름답고 향기롭고 좋다.

3) 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옷을 입고” 의복을 입어야 한다. 옷 입으라는

것은 최고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입었던 옷이 아닌 신랑을 사로잡는 최고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옷 입으라. 4)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란 끝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겸손과 지속을 말한다.

5) 3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그 사람이 너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비밀이다. 받은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또한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한다.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하기까지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6)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눕는 곳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다. 교회도 관계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은 신랑이 누워계시지 않는 곳에 갔다가는 이것은 헛된 일이다. 그래서 신랑이 계신 곳을 알아야 한다. 신부의 자격은 눕는 곳을 확인해야 한다.

7) 4절에서 신부의 자격은? 신랑의 발치에 눕는 것이다. 여기서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누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없이 하라는 것이다. 이때는 뻘뻘스러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심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랑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끝장이다.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적그리스도 짐승 만났다가는 끝장이다. 신세 망치고 만다.

그래서 발치에 가서 누우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롯이 말하기를 어머니 저 보아스 밑에 내가 어떻게 발치까지 갈 수 있을까? 말도 한번도 못해 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발치에 가서 누우라고 할까? 하고 이러쿵, 저러쿵 불순종했다면 그 발치에 들어갈 수 없다. 어느 여자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렵도 없다. 더구나 롯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잘 생긴 여자라면 몰라도 롯은 결혼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모압지방 여자이다. 이방 여자이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여자인

정기남 목사
편집인



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어딘가 모르게 거립직한데 그 발치에 들어가라 하니, 도저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이다. 들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나 롯은 들어간다. 발치를 들추고 누웠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신사적인 사람은 안되는 것이다. 속내는 불합격이다. 뻘뻘스럽게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발치까지 가야한다. 바로 여기 일곱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롯 1: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 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롯과 함께 돌아올 때,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고 했다. 이것도 역시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이 시작되려는 그 때에 돌아온 것이다. 세상은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속히 돌아와야 한다. 지금 다섯 번째 타작마당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롯은 누구인가? 롯은 이방 여인이다. 곧 우리를 표상한다. 이방인인 우리가 마지막 때 복음을 받아드린 모험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약 4천년이 지나고, 신약시대 중에서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온 것이다. 신약시대 말인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도 큰 수지를 맞았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신구약으로 말하면 6000년의 시대를 사가는 이 때에 이 복음이 끝나가는 때에 추수로 말하면 마지막 끝물을 거두는 때에,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건인가.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롯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드리는 표상으로 롯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기회인 찬스를 외면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이요, 하늘의 복을 차버리고 지옥불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9-

실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첫째, 성경말씀을 통하여:

① 성경을 읽을 때 ② 목사나 사람을 통하여(사 119:105) ③ 묵상 중에(사 30:21, 출 3:4) ④ 직접 성경 구절을 알려 주심 ⑤ 설교, 간증, 성경공부, 찬양 중에

둘째, 청각을 통하여:

①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느김, 영감 역사, 요 10:27; 16:13) ②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행 9:4-6) ③ 다른 사람을 통하여(삼하 12:1-12)

셋째, 시각을 통하여:

① 환상을 통하여(행 10:1-23, 사 6:1, 계 1:12-17) ② 꿈을 통하여(창 37:5-11, 단 2:1-6) ③ 천사를 통하여(창 19:1-23) ④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사 38:8, 사 6:21, 36-40) ⑤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이때 마귀의 속인수를 조심해야 한다(행 8:9-11, 출 7:22).

실상(實狀 Actual) 기도를 하라
- 실상 기도의 비밀(히 11:1-2) -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 11:1-2)

1. 기도의 문제점

성경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라고 말한다. 호흡이라는 말은 숨을 쉰다는 말이 아닌가? 그렇다면 호흡을 안 한다는 것은 숨이 끊어져 죽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다. 마 7장 21-23절에서 하나님은 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오려고 할 때 ‘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를 떠나라 ’ 고 하셨을까? 어떻게 믿었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결정적으로 심판대 앞에서 내쫓김을 받는단 말인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사건 앞에 선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한 자들이 아닐까. 많은 믿는 자들이 ‘ 예수를 입술로 시인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은 맞는 말이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평생 구원의 길을 걸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고 내치실

것이다.

‘ 열 처녀의 비유 ’ 에서 신랑과 같이 잔치집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인가. 신랑과 동행한 자들이었다. 동행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문밖에서 슬피우나 신랑은 ‘ 나는 너희를 본 적이 없어 모른다 ’ 고 했다. 이것은 소설이나 비유가 아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 (마25:6-13)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모든 종교인들이 다 기도를 한다. 하물며 불신자까지도 다급한 상황에서는 기도를 한다. 기도는 들어주고 받아 줄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이다. 허공에 하는 기도, 자연에게 하는 기도, 짐승에게 하는 기도, 귀신에게 하는 기도, 우상에게 하는 기도, 인간에게 하는 기도,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 등 기도의 대상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믿는 대상은 우상이나 잡신이나 피조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실존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는가

1) 신실한 기도를 받으신다.
누가복음 18장 9-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온다. 바리새인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은 율법 공부를 많이 하는 지도자급 사람들로 신앙적인 열심이 무척 강하다(마 15:5-9). 따라서 개중에는 그들이 다른 계층보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아래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십일조도 빠뜨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을 하나님께 빠짐없이 아뢰며, 그가 다른 자들, 특히 손가락질 받고 사는 세리와 같이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세리는 당시 멸시당하고 천대받으며 죄인처럼 사는 자로, 감히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며, 가슴을 치면서 ‘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 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바리새인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운 분이로서 ‘ 영과 진리 ’ 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때문이다(요 4:23-24).

2) 목적 있는 기도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막연히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보다는 목적 있는 기도를 들으신다. 목적 있는 기도란, 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요 14:13), ②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마 6:33), ③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하여(시 145:18), ④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시 50:15, 시 120), ⑤ 죄 사함 받기 위하여(대하 7:14), ⑥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⑦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신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며 (시 65:2),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도우시며 (롬 8:26-27),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월영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담임 김관호 목사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심곡동 2층)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석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백영장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열두광주리
기도원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김명호 목사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00
금요철야 저녁 8:00
화요일-목요일집회 저녁 7:30

조강수 목사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366(가좌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별장·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승준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능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백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 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국경목총회 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층)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충남기총 제14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 취임예배 드려

사랑의 헌혈운동, 자살예방, 출산장려 캠페인에 총력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쓰임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대표회장과 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했다.

이어 충남기총 사무총장 최연범 목사의 사회로 2부 대표회장 취임식이 진행되고, 개식사에 이어 이 취임식 기도에 홍성기독교연합회 회장 함동주 목사, 또한 제13대 동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섬겨왔던 김상윤 목사,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가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직전대표회장 김상윤 목사는 영상을 통해 이임사를, 상임회장 안준호 목사는 제14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를 소개하

고, 홍성기독교연합회 회장 함동주 목사의 취임패 증정이 있었다.

제14대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취임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며 힘찬 박수 담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부족하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어려운 시기인데 이 막중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면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과 은혜이며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며 피력했다.

특별히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는 직전 대표회장 김상윤 목사, 사무총장 한철희 목사, 이외의 임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반석과 같이 뿌리를 잘 내려왔기에 명실공히 광역시도 연합회가 많이 있지만 가장 선도하는 광역연합회가 되었다며 다시 한번 직전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했다.

회장단의 열정적인 협력을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역대 고문, 자문위원, 실행위원 여러분들의 협력을 확신하고 있기에 이분들의 도움과 협력으로서 제가 감히 급한 한 회기 동안 임원들과 더불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오 대표회장은 섬기고 있는 홍성제일교회와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성도 여러분의 헌신적인 눈물의 기도과 섬김

이 있었기에 힘을 공급받고 있다면서 감사했다. 또한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충남연합선교와 사회적 선교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회 유창기 회장과 충남기총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는 협약서에 서명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공헌은 물론 사랑 나눔과 실천의 약속이며 이는 또한 행복충만 씩씩이가 바른교회 운동이며 MOU를 통한 실천을 약속하고 아울러 충남기총 임원들을 거명 소개했다.

3부 순서로 평안하고든든한교회 하가람 집사의 축가를, 영상을 통해 충남남도 양승조 지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이건희 목사(정주제일교회),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육군본부 김태진 장군이 축하했다. 이어 충남성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충남기총 고문 박종서 목사, 기독교장로회 총무 김창주 목사 등이 축하했다. 내빈소개에 이어 충남기총 고문 강신정 목사의 축도로 충남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을 마쳤다.

한편 충남기총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홍성제일교회/평안하고든든한교회)는 지저스타임즈 CJTN TV사 제5대 이사장에 5월 28일(금)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 오종설 이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충남기총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지저스타임즈 및 CJTN TV 직전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증경 이사장 조강수 목사, 명예이사장 장한국 목사, 또한 축전을 주신 이사진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충남기총)는 지난 4월 25일(주일) 오후 4시 30분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리에 자리한 평안하고든든한교회(담임 오종설 목사)에서 충남기총 제14대 대표회장 취임식 감사예배를 드렸다.

상임회장 안준호 목사(열매맺는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충남기총 자문위원 최장희 목사(탐동교회)가 기도를, 논산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인호 목사(성광장로교회)는 담전 6:11~16절을 봉독하고, 평안하고든든한교회 살롬중창단의 은혜가 넘치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충남기총 고문 김병욱 목사(금산순복음교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김병욱 목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중재의식을 갖고 맡은 사역에 충실한 자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속적이고 유희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도전해 올 때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것이며, 주의 거룩한 사역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면서, 세상의 싸움은 악한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며 이는 영생을 취하는 것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싸워야 할 것을 전했다. 또한 김 목사는 담전 6: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힘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6절 하,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어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지킨다는 것은 회생과 눈물여린 헌신이 동반되는 행동이라면서 하지만 많은 사람이 시간과 물질과 정욕을 드리고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가며 세운 금자탑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넘어져서 뿌리째 뽑히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목사는 우리의 사역

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실 뿐만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요 진령이요 마지막이요 때문이라면서 롬 16:36 ‘이세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이다’. 아멘. 하였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피력했다.

충남기총 고문 김병욱 목사는 존경하는 오종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되셨다. 물론 전에도 회장을 역임하셨다. 리더 중의 리더라고 했다. 대표회장과 이번 회기가 충남기총의 리더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증언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초심을 잊지 말고 지켜서 행하며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대표회장님이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직 너



<종교자유①> 헌법상 종교의 자유

전능자를 신뢰하는 믿음!정기남 목사
(편집인)

시 91:1-7, 15-16

진실한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가 없는 것은 부활도 없다. 십자가가 없다면 사랑도 용서도 없다. 우리가 믿는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데 사실 평생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다. 대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걸 포장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아름답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다할 것같이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바람 빠진 풍선에 불과하다. 불가능

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해결될 문제를 왜 한사코 걸 포장된 믿음만 고집하고 있는가!

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께서 막 9:23절에서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한탄하며 불가능으로 사는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인생이 아닌가?

걸 포장된 신앙인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들도 포장은 보기에 좋는데 평생을 열어보면 십자가가 없다. 구원의 확신도 없다. 사랑도 용서도 없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왜 믿음은 없고 자신을 포장만 하고 사는가? 예수님은 이런 자를 가리켜 눅 20:38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 마 15:8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역만 죄악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다. 때론 사랑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시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탄사가 절로 나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럴듯하게 포장만 하고 믿음이 있는 척, 능력이 있는 척, 자신이 최고 인양, 자신이 깨끗한 목사 인양 그렇게 사는가? 기독교의 행복은 자신이 죽었을 때 행복을 얻는 것인데 자신이 안 죽으면 걸 포장은 행복한데 속마음은 행복은 없고 불행한 쓰레기들로 가득한 것 뿐이다.

우리 예수님은 걸 포장에 호들갑을 떠는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화질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마 23:27-28). 고 화 있을진저 하고 엄히 책망하셨다.

목양칼럼 26

광야생활에서의 주님

23.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

세상으로 비유되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예표인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세상)에 속하여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양을 먹는 수준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세상(술, 담배, 도박, 향락 등의 육체의 일)을 끊는 노력을 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며 출애굽에 성공한 하나님의 선민은 블레셋 땅을 지나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혈과 육과의 싸움-육신의 일)을 보면 뉘우쳐 다시 애굽(세상)으로 돌아갈까 봐 홍해의 광야 길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친 이스라엘에

대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바 되었다고 하며 그 뒤를 좇아 다시 노예로 삼고자 하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가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출 14:11,12)하며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출 14:13,14)하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

밀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결국 불평과 원망을 하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갈라진 홍해로 뒤흔들었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큰일을 봄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애굽(세상)과의 뚜렷한 경계(홍해)가 생기게 되어, 다시 애굽(세상)에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제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성결의 땅으로의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세상)에서 가졌던 가치관과 비전리의 성품으로 인해 대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므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기가 일쑤입니다.

급기야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어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지 못한 분야들을 발견해 제거하는 혈과 육(육신의 일)과의 싸움을 시작하여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합한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CTN TV 삼빙이사

나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화질한 무덤처럼 화려한 포장으로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요?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얻는 돈, 명예, 인기, 이러한 걸 포장으로 얻는 행복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는 데마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들이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딤후 4:10) 하였다.

오늘 본문 시 91:1-16절 말씀의 핵심은 진실한 믿음, 걸 포장만의 믿음이 아닌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3절), 5-6’라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2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역자들이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를 공23. 애굽(세상)에서 광야(육신)로포에 떨게 하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중국의 중심부라고 한다. 후베이는 우리 남한의 면적보다 크다고 한다. 바로 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

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엄청난 중국인들이 죽었으며 감염확증자도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한다.

중국 시신핑은 우한시를 시범지역으로 선택하여 교회의 종탑을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리고 교회를 폭파시키며 무수한 교인들과 선교사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만나는 기자들과 집사에게도 하나님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시작한 중국과 시신핑을 가만 두고만 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그 일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한과 중국 전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호주는 6개월 이상 엄청난 산불재앙으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며 엄청난 고통에 처해 있고, 게다가 골짜기 크기에 우박과 홍수로 사람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또한 얼마 전에는 1.5 미터의 크기의 바퀴 30만 마리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재앙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마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하자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노라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하셨다. 마 24장은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다.

24. 광야(육신)에서 가나안(성결)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광야의 삶은 안식과 만족이 없는 답답한 생활이고 풍성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소극적인 생활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혈과 육과의 싸움을 하는 독립군과 같은 삶입니다. 또한 바한 식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 애굽과 가나안의 사이에서 망설이며 애굽(세상)의 패락을 동경하기도 쫓고 풀이 흐르는 가나안(성결)을 기대하는 결단력 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지루하고 답답한 광야생활을 청산하고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과 부활의 강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하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달아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진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 살 소망조차도 끊어진 병든 자임을 고백하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죽음과 부활의 강한 요단을 지나 여호수아(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과 축복과 성결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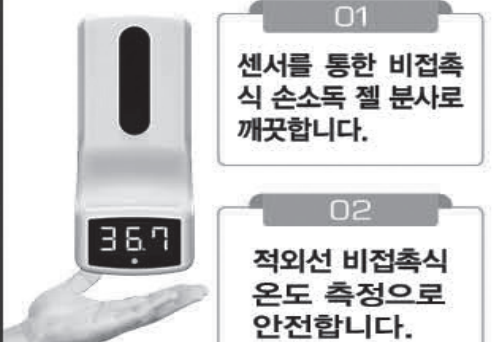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지키는 방법COVID-19 Ag Home Test
코로나19 항원 자가 검사 키트 가이드

2키트
소비자가격 **17,600원**
교회특별가격 **14,000원**
(주)영광기업 1588-0691
010-3651-8572
1년365일 바로처리

전자동 손소독기
손소독과 체온측정을 한번에!

비접촉식 발열체크 및 손소독



248,000원 ▶ 148,000원에 드립니다

복사기 만대 이상 판매, 열화상 카메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화상 카메라 구매가 부담되어 망설이셨던 교회에 기본 소독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접촉식 온도계 + 자동손소독기 + 발열체 + 충전기 + 소독젤 5종류(전부 포함)를 택배비 정도만 받고 148,000원에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이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소개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웃 교회 방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십시오※
https://youtu.be/CbLx-7X0fG4

(주)영광기업 1588-0691
010-5779-0691

열감지기 + 전자동 손소독기

398,000원 ▶ 298,000원

(주)영광기업 1588-0691
010-5779-0691
1년365일 바로처리

장로회총회, 감리회본부, 침례교본부, 성결교총회 외 10,000여 교회에서 절찬리 사용중입니다!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7샷에서 주보가)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1m 20cm 빠른 출력 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채택으로 유지비용 절감
- 대용량 용지 급지대 지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C,M,Y 4개)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영광기업 TEL. 1588-0691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
대표이사: 정학영 정로 010-3651-8572, 010-5779-0691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앞) 032-551-4114



지저스타임즈 제5대 이사장 오종설 목사와 대담

제2회 기도회 개최, 기독 국회의원들 협력 약속



제5대 신임회장
오종설 목사
충남제일교회,
평안하고든한교회
담임목사

신문방송 제5대 신임 이사장 오종설 목사(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홍성제일교회/평안하고든한교회 담임)는 이사장 취임을 앞두고 신문방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론방송으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국내외 선교를 방송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다며 신문방송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이사장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며 인터뷰를 통해 인사를 했다.

이사장 오종설 목사는 2007년 12월 19일 창간호 1면 기사에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는 홍성제일교회의 표어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 감명깊었던 것은 홍성군을 성시화 하자는 당찬 계획을 갖고 교회부흥에 충실하게 이루어져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밤 낮 주야로 노력을 다하고 있을 때 벌써 교회는 당시 500명이 넘는 성도들로 뜨겁게 부흥되고 있었다.

그 결과 홍성제일교회 제1 성전과 제2 성전이 홍성을 내포로에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황금어장에 평안하고든한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십자가 탑이 높이 세워져 교회의 아름다움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빛나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다. 본지는 지난 20여 년간 지저스타임즈 CJTN TV 방송과 함께하며 성장해 오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25일 창간 15주년을 맞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감사예배가 미루어져 오던 중 2021년 3월 19일(금)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 영광교회 분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린 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종설 목사를 제5대 이사

장으로 추대했다. 홍성 내포로 지역에 신축된 아파트 숲 중앙에 제2 성전 “평안하고든한교회”를 건축하고 새 성전에서 지저스타임즈 신문방송 제5대 이사장 오종설 목사를 만나 덕담을 나누고 신문방송 발전과 문서선교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 힘쓰겠다고 했다.

또한 충남기총의 대표로서 15개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한 앞의 일이 되겠다는 대표회장 오종설 목사의 소감이었다.

그러면서 제5대 이사장 오종설 목사는

1. 미력하지만 제5대 이사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모든 이사장님, 이사님들 회원 목사님, 임원들과 함께 잘 섬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송 선교에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가면서 본 방송언론 발전을 위해 잘 섬기며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이사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어진 일에 힘써 나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저스타임즈와 방송은 지금까지 섬김으로써 기독교계의 언론방송으로서 해 왔다고 봅니다. 맡겨진 일에 초심을 잃지 않고 한국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는 목사님들과 1300만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김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언론방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써 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우리 이사 목사님들과 지혜와 비전과 정



책을 잘 모아서 발전적으로 세계를 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실천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2. 섬기고 있는 ‘홍성제일교회는

양한 선교적 일감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미력하지만 주신 일에 다양한 일감들을 하나하나 더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

이러한 와중에 2021년 제14회기를 맞이하면서 총연합회에는 특별히 충청남도도와 함께 충남의 정책을 기독교계와 연계해서 연합회가 나누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지

저출산 문제, 헌혈나누기운동, 자살예방운동에 앞장서겠다

주님의 은혜로 32년 전 창립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 충남 홍성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던 가운데 3년 전에 홍성을 내포로에 평안하고든한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을 섬김에 30여 년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족복음화운동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성시화운동을 통해서 충남도 시군 직장선교에 임원진과 함께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라고 한다면 아멘하고 지금까지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부분들은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의 활동을 위해 방송신문과도 연계하겠다. 이사장 오종설 목사는 ‘우리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창립 14회기를 맞이했습니다. 충남은 15개의 시군연합회는 각 지역에서 수십 년간 연합운동을 해 오면서 현재 광역단위로 충남도 기독교연합회가 창설되었고, 아울러 시군연합회와 더불어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금까지 13회기 동안 다양한 연합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역사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또한 본 총연합회는 저출산 문제, 헌혈나누기운동, 자살예방운동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기도회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을 충남도와 MOU를 맺고 이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충남성화운동본부를 비롯한 우리 기독교단체와 MOU를 맺고 연합활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 서전에 우리나라 최초 성경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국 교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는 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단과 교

파 지역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운동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목회자들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며 교단 교파를 초월하고 목회자의 단합과 친교를 가지면서 여러가지 행사를 계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내 15개 시군연합회와 같이 충남기총은 큰 행사로 8월 15일 광복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가지 영성집회, 각종 세미나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는 차체에 여러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지저스타임즈 방송을 통해서 전국 교회에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 각 교회에도 협조를 요청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에 등록된 교회의 수는 3200 교회로 되어 미등록된 교회도 있습니다. 충남기총 본 협회는 시군연합회를 통해서 이단을 제외한 정통 교단 교파들의 숫자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기총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충남기총과 같이 연합운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는 각기 활동하면서, 성시화운동본부와 충남기총이 협약하고 양측 두 기둥으로 주의 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남기총은 CJTN TV 방송과 지저스타임즈 신문과의 협약을 갖기를 바라고,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전국에 있는 본 신문방송 이사님들을 비롯 문서선교에 힘쓰고 있는 분들과 뜻을 모아 좀 더 구체화 되어있는 섬김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이

사장으로서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방송언론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교활동에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이에 걸맞게 각 지역마다 헌신할 수 있는 목회자들은 물론 이에 동참을 원하는 기업인들도 이사로 영입하고 모아서 본사와 지국도 튼튼하게 도안에서 만들어 가는 이런 작업들을 미력하지만 이사장을 맡은 임기 내에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더불어 우리 신문방송을 위해 힘쓰시고 협력하시는 이사님들, 함께하는 목사님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곧 이루어질 방송국 스튜디오가 신설되면 우리 지역 목사님들과 충남기총 소속된 목사님 개개인에게도 방송국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덕담을 나누이며 좋은 교회 만들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데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방송신문사로, 그리고 또 진실로 교회와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방송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송으로 발전해 나아가며, 정착되어 가는 방송신문사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뜻 있는 방송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전과 도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하는 애정 여러분과 더불어서 더 알차고 번성하는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놀라운 방송국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원과 협력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21 번성표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 6:14)

예/배/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예신총회장)
Rev.(D.Min): Park Jo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110-1 (갈마동)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pj2863@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광주에서 열방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2021 표어: 성령의 인도함 받는 교회
(롬 8:14)

시무장로: 안종기, 함영호
은퇴장로: 공재홍
교역사: 허재준강도사, 안행주강도사

원로목사: 허창범
담임목사: 김사라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11:00 3부
오후 1:3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철야: 저녁 8:00

웨신총회 인준 웨스트민스터비율신학교 학술회
푸른솔노안복지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에다음 2차후문 앞 수완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백성TV칼럼리스트
•CTS칼럼리스트

제목: 삶을 사는 지혜

성경: 잠언1:7 찬송가 204장

본 절은 잠언서 전체에 가장 핵심이며 지혜로운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고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악을 미워하며 정벌하시는 분으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으로 존경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바로 이것이 지사의 근본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흑시 우리도 1

성경: 시10:1~6 찬송가 445장

악인들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때 때로는 믿는 자들도 간혹가다가 본분 1절처럼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깨뚫어 보고 있다고 믿는다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가까이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 궁궐을 거닐 때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사방으로 평안히 거닐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에 변질되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제목: 흑시 우리도 2

성경: 시10:1~6 찬송가 446장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라면 내 앞에 일이 너무 꼬여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방팔방 안 되어도 간섭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고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계십니다 (시 139:3~4).

하나님은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시34:18).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아픈자요, 상처받은 자입니다. 가슴 깊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지켜주심

성경: 시편 66:7~9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몸의 생명을 지키시고 연장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과 의 가운데서 보존됩니다. 믿음과 의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마다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실족함이란 불신앙과 죄에 떨어짐을 말합니다. 성도는 잠시 동안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도를 불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제목: 은과 같은 성도

성경: 시편 66:10~12 찬송가 287장

본문은 '예나하면'이라는 말로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실족치 않게 하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같이 단련하십니다. 은은 은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한 것입니다. 성도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이지만, 범죄함으로 죄악된 성질과 습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거룩한 인격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고난에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목: 대속의 은혜

성경: 시편 66:13~15 찬송가 321장

사람은 환난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결심하게 되며, 그것이 서원으로 표현됩니다.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 한 서원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일차적으로 속죄를 의미하지만, 또한 온전한 헌신과 순종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제목: 기도 응답

성경: 시편 66:16~20 찬송가 452장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송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제목: 공훈의 복

성경: 시편 67:1~3 찬송가 429장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훈과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어떠한 복도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며 찢갠 죽음과 불행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훈로 죄인을 용납하실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훈로 사회와 정의의 곧 구원의 복을 주시며 또 부수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십니다.

제목: 열방의 찬양

성경: 시편 67:4~5 찬송가 620장

본문은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연을

노래하는 동요나 인간의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과 그리움이나 이별의 슬픔에 대한 노래가 아니고, 창조자요 섬리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이 배후신 은총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객관적 공정성과 우주적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통치하시며 판단하시고 선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제목: 찬송의 삶

성경: 시편 68:3~4 찬송가 268장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주신 구원과 위로 때문에, 그분의 기도 응답 때문에 기뻐해야 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죄는 슬픔을 가져오지만, 의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천국은 의와 기쁨과 찬송으로 충만한 곳이며, 성도는 세상에서도 의와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목: 특별한 은혜

성경: 시편 67:6~7 찬송가 428장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마다 주시는 땅의 소산들입니다. 그

러나 땅의 소산은 이런 자연적인 복뿐 아니라 특히 영적인 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은 온 땅에 주신 구원의 열매들을 가리킵니다. 온 땅은 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택한 백성의 구원이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전도의 일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목: 원수의 멸망

성경: 시편 68:1~2절 찬송가 348장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탄과 그 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원수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엔 잠잠하시고 그들의 악행을 못 보신 채 하시는 것 같지만, 일어나 그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흩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며 얻기같이 물러가고 불 앞에서 초의 녹음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제목: 거룩한 처소

성경: 시편 68:5~6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처소에 계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죄와

불결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옥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며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외로운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해주시는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굶핍과 부족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목: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68:7~8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앞에서 행하십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광야를 통과해 행진하셨습니다.

광야는 거친 땅이었지만, 날마다 만나를 양식으로 주셨고 때때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지는 진동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며 또 그분의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그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십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이해 (1)

노년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

노년기는 인생 여정의 끝자락에서 지난 세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남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과제를 안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희망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비관적일 수도 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노년기 우울증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이나 울적한 기분 상태'로부터 지속적인 상실감이나 무기력감을 포함하는 정서장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다. 이러한 노년기 우울증은 상실감, 신체적/인지적 능력의 감퇴 등의 심리적 요인과 함께 만성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대처전략의 실패 등의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노년기 우울증은 몇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가정치매의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인지력의 손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표되는 예가 최근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럴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들은 초기 치매 증세를 의심할 수 있지만 우울증 또한 인지력 손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

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특징은 우울증은 겉으로는 밝고 평안해 보일지라도 가면 뒤로 감춰진 고통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가면 우울증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적 질환과 연관된다.

우울한 노인이 보이는 증세는 슬픔이나 좌절감 같은 정서적 증세보다는 피로, 수면장애, 삶에 대한 흥미의 상실 등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만약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온다면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현아 교수

웰치시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자 하중우 (야호 녹원(鹿苑))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석사(Th.M)졸업 2000년 『자유문학』 기호로 신인상 시 당선, 한국문인협회 회원, 공무원 28년 근무 지도관 퇴직, 제10회 서초문학상, 제19회 열린시문학상 수상, 한국신학교 교수, 경기신학교 교수 역임 한 벼슬신학교 대표회장 email:siloam53@hanail.net / (우) 17913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 12. 106동 406호(합정주공시) hp:010-2740-1571

하중우목사 제2시집 평택비둘기

「시인의 말」

학창시절 '물레방아 굴짓기' 모임에서 '점목'이라는 시화 전시를 출발로 2000년도 문단에 등단하였고, 2011년 첫 시집 '서울참새' 이후 두 번째 시집 '평택비둘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시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은 처음에는 의문(?)으로, 어느 날 나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그리고 나의 영원한 절대자(!!)로 다가오셨습니다.

목민 공직자로 봉직하고 사랑하는, 목회자로 양들을 섬기는 동안 내조로 몸 바쳐 온 아내와 든든한 후원자 영일, 현정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도 선교의 큰일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께 제1집 1,000권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모두 선물로 증정되었고 그 후 재판 500권은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우간다 등 세계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제2집 평택비둘기가 더 큰 세계선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머리말

人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 재림 시 실족자 장엄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라고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의 신부가 되는 비결은 곧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서 드러내는 참되고 신비한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 강해서의 저자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사』의 저자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의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순교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라고 요청했고 네로 황제에 의해 자신의 요구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여! 날 위해 하나님 아들로서 그 크신 고난을 받으셨고,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었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나요? 나 같은, 나같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너무나 과분하고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고백하며 최후의 생을 마친 것이지요.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성령으로 증거하는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그의 믿음과 똑같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역동적인 순교의 믿음을 갖게 하며 특히 주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천천히 존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본서는 주 재림과 7년 대환란이임박한 이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합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재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한 순교신앙에 오르게 될 것이며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맞이할 신부가 되기 위한 순교신앙에 오르게 될 것이며 똑같은 영광을 받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충동적이며 실수 많은 어부 시몬을 주님은 제자로 불러 많은 훈련과 연단을 거쳐 시몬 베드로가 되게 하였고, 더 나아가 찌꺼기와 혼잡물을 완전히 빼내시어 중국에는 미리 주셨던 새 이름인 '베드로'에 온전히 합당한 새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를 금강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저자에게도 실제로 본서의 말씀과 똑같이 경험하고 연단을 거치게 하였고 본서에서 증거하는 첫째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하셨음을 독자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그동안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해설하고 때 목회자 대상으로 간헐적으로 증거해 오다가, 비로소 2018년에 주사람교회 강단에서 강해사로 날날이 증거하기가 이르렀습니다. 이 강해서를 출간하기까지 주관하고 역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서선교의 귀한 은사를 받은 강화정 권사님 이 오직 성령의 감화역사로 헌신하시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 권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과 본으로 보상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본서의 성경 본문을 김제임스 번역성경으로 기증하였습니다. 이는 헬라어 스테판 다수필 원문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통해서 독자 여러분께서 새롭게 진리를 깨달으시며 크나큰 영적 은혜와 유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저자 장한국 목사

영광교회 조강수목사

매주 금요일 전국 목회자 초청 쌀 나눔 행사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 위해 자가용 없어... 대중교통 이용!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천영광교회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손 소독과 거리 두기 등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식사 대신 참석하신 목회자들에게 쌀 4kg 1포씩 기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목회자가 어려움을 겪어 있는 것을 보고 조 목사 자신도 어렵지만,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결심하고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와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을 시작한 지 6주째를 맞았으며 각 지역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회가 준비한 쌀 나눔을 갖고 있다. 조 목사와 교회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적은 것이지만 예배 및 세미나를 열어 서로가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면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것을 확신한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기부문화를 통해 나눔의 행사를 매주 실행하고 있다면서 이곳에 참석하여 각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날 조 목사는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전국에 많은 개척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고 급기야 교회가 없어진다면 생각하면 눈시울을 적시고 만다는 것이다.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절약하여 개척교회 하나라도 더 돕기 위해

그래서 조 목사는 기도해 오던 중 결심하고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교인들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재정적인 타격도 있지만, 이웃 교회들과 개척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자가용 타는 것을 포기하고 마을버스 또는 지하철 등 대중교

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면 개척교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적은 쌀 4kg을 기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쌀 8kg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강수 목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열리고 있는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 및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한 결과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친한 형제자매 사이처럼 큰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며 덕담으로 큰 힘을 얻고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돌아가는 모습이 항상 기쁘다고 한다.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미나에 이어 쌀 나눔의 행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며 앞으로도 이 쌀 나눔 행사는 계속되어 진다고 했다. 조강수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인내하되 이제의 교회들이 문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잠



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며 강단에 올라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다고 했다.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므로 조강수 목사는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목회자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세미나를 더 갖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0여 년의 목회 경험담을 교재로 도움을 드리는 데 있다며 전국 목회자를 초청하고 후원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이번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이곳 영광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자며 적지만 조그마한 4kg 자리 쌀 한 봉지씩 드리고 있다.

매주 금요일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의 취지를 설명하면!

한편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배정희 목사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광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후원받으시고 어려운 이 시점에 힘을 모아 기도하자고 했다. 참석하셔서 각자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했다.

또한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는 전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목회자를 환영한다면 언제든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하고 영육 간의 충전을 위한 기도회가 절실하다면서 본회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해 달라고 인사했다. 이어 우사랑 목사는 영광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조강수 목사의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통해 첫 사랑을 회복했다며 기쁨을 참지 못했다. 이곳에 오길 참 잘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다며 신앙을 고백했다. 눈물을 많이 흘렸으며 심령이 열리면서 많은 것들을 알았다고 했다. 우리 함께 은혜받고 성령충만, 말씀충만으로 첫사랑이 회복되며 목회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영광교회로 초청한다고 했다.

또한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선교 회장 최창옥 권사는 당회장 조강수 목사님의 뜻에 따라 전 성도들이 힘을 모았단다면서 전국에 어려운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게 되었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남녀 목회자를 초청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본 교회의 조강수 목사님의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꿈이 기부문화로 쌀 나누기 운동, 사랑의 운동이라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목회자를 후원하여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그 이상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선교 회장 최 권사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현재 50여 분이 모

여서 예배드리며 뜨겁게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기쁨을 누린다고 했다. 최 권사는 또 전국에 계신 목회자들이 이곳에 오시면 목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섬기는 교회가 부흥될 것을 믿는다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전국 목회자 후원예배 및 세미나에 오실 것을 크게 외치고 있는 최창옥 권사!

『약속을 이루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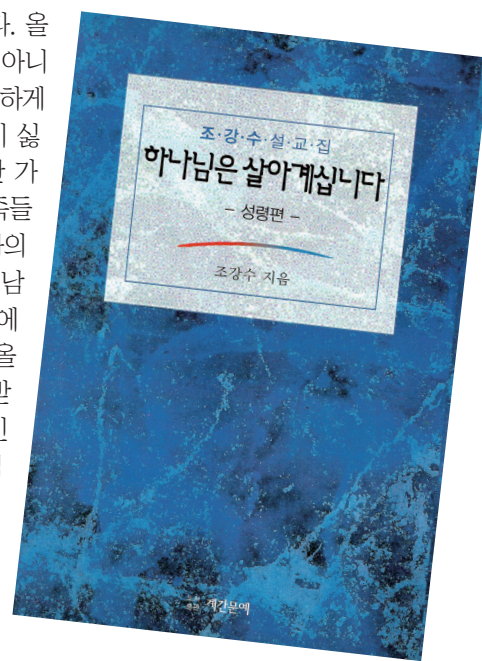
사람인(人)자를 살펴보면 두 개의 시선이 비스듬하게 만난다. 왼쪽에 있는 것은 남자를 가리키는데 사다리를 올라가는 모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선은 여자를 가리키는데 남자의 사선을 받쳐주는 형상을 하고 있다. 남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라가야 한다.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한다. 올라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어떤 때는 욕도 먹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는 일도 있다. 욕먹기 싫다고 회사 안 다니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인(人)자의 밑에 있는 사선(아내)은 우리 남편이 위로 잘 올라가라고 밑에서 받쳐 줘야 한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에서 떠받치고 돌이 하나가 될 때 사람인(人)자가 생긴다.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人)의 풀이이다.

이 두 사람은 서로가 다른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다. 비

바람이 불어도 남편은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여보, 힘이 들지만 직장 나가야 해요.” “힘들어도 일해야 해요. 돈 벌어야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남편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다. 남자들은 새벽에 한 시간만 더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일터로 가야 한다. 또한 아내도 힘들고 귀찮아도 남에게 새벽 해 줘야 한다. 새벽에 일 나가는 남편 두고 잠만 푹 푹 잔다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엉망이 되고 만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목사가 올라가면 장로, 집사들이 밑에서 받쳐 줘야 한다.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왜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은 곧 하난미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붙들어 주고 응원해 주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일해야 될 사람은 일해야 한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그게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고 튼튼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도망을 간다든지 밑에 떠받드는 사람이 힘을 빼 버린다면 약속은 깨어지고 만다. 약속은 서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조강수 목사 설교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중에서 “약속을 이루는 사람” 설교 중에서 일부 내용입니다.



전국 목회자 후원 감사예배 및 세미나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까지 [쌀 나눔 행사]

인천 영광교회

“너희가내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1~32절)



강사: 조강수 목사 [인천영광교회담임]

장소 :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366, 전화 : 032-577-1225

주님 허락하신 기부문화로... 전국 어려운 교회에 쌀 나눔의 기쁨을!

<찾아 오는 길 교통편>

28번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28-1 버스 한신휴아파트 정류장 하차
3-2 버스 범양아파트 정류장 하차
24-1 버스 코스모스 아파트 하차

<지하 철 이용>

동암역에서 - 593 마을버스 승차 - 범양아파트 하차(중점) 앞 영광교회
백운역에서 - 566 마을버스 승차 - 범양상가 정류장 하차(중점) 앞 영광교회